

벼농사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높인다

작가 노동력 최대 활용하는 벼전업농가
임차 이용한 경영규모 확대·직파재배로 생력화



“농 촌지도소에서 보급하는 재배기술을 토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이같은 큰 상을 받게돼 정말 기쁩니다. 쌀을 많이 생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쌀농사에 큰 공을 세운 우수 시·도와 시·군 및 농가에 대한 시상식에서 쌀 생산비절감 최우수농가(다수확)로 선정돼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李鎬出**씨(41.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38)의 그저 소박한 수상 소감이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마다하고 노부모를 모

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부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 농사를 짓기 시작한 **李**씨는 현재 8.5ha의 벼농사와 한우 30두를 사육하고 있다.

현재 용주면 농업경영인 회장직을 맡고있는 **李**씨는 1985년 축산분야 농민후계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농 종사 인원이라야 부부 2명이며 연간 영농종사 일수는 260일로 벼농사와 한우를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이다. **李**씨는 특히 노동력 및 비용절감을 위해 트랙터 이앙기 예초기 비료·농약살포기 건조기 트랙 등 농업에

필요한 모든 농기계와 벼 육묘재배를 위한 육묘장 50평, 건조장 50평, 격납고 20평 등의 재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다수왕 노리는 첨단 농업인

李씨의 핵심 경영기술을 보면 ▲양질의 다수성품종인 향남벼를 재배하여 병해충 및 도복피해를 방지한 안전다수확 재배 ▲어린모 기계이앙재배로 육묘노동력을 절감하고 개량물꼬 사용으로 자동 양수조절 가능, 완효성 복비 1회 시용 등으로 노력 절감 ▲건답직파 3ha와 어린모 5.5ha를 재배하여 노동력의 68%를 절

표 1. 투입 노동시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벼				240	280	40	30	30	25	210	20		875
감자			100	220	250	80							650
단옥수수			100	60	200								360
한우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440
계	120	120	320	640	850	240	150	150	145	330	140	120	3,325
자가노동	120	120	320	600	670	240	150	150	145	330	140	120	3,105
고용노동				40	180								220

표 2. 작목별 소득

작목	규모 (평)	생산량 (kg)	조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소득 (천원)	구성비 (%)
벼	25,500	53,975	97,006	8,824	88,182	90.8
감자	1,800	12,000	5,400	2,682	2,718	2.8
단옥수수	1,000	12,000개	2,400	900	1,500	1.5
한우	30두	25두	21,250	16,500	4,750	4.9
계			126,056	28,906	97,150	100

감시키는 생력재배기술을 실천 ▲적기 영농작업 추진으로 정밀 농작업 및 안전영농 추진 ▲생력 재배를 위해 직파논에는 파종후 5일만에 1차 제초 처리하고 30 일만에 2차처리 ▲어린모 이앙 답에는 이앙후 7일만에 제초제 처리하고 논두렁잔디의 식재관리로 제초 노력 절감 ▲유효분일 확보를 위해 이앙후·이삭판 후 각각 1·2차 중간물떼기를 실시 하는 등 남다른 경영기술을 보여 왔다.

년간 소득을 묻는 질문에 극구 밝히기를 사양했던 **李**씨의 전체 소득구성비를 보면 총 농업소득은 9천7백15만원이다. 이중 주 작목인 벼농사소득은 8천8백18 만원으로서 90.8%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우 4.9%, 감자 2.8%, 단옥수수 1.5%순이다(표 2).

주작목인 벼의 10a당 수량은 635kg으로 전국의 518kg보다 22.5%의 증수를 보인것이며 노동시간 또한 10.3시간으로 전국 평균 32.8시간보다 31.4%를 줄여 직파 및 어린모재배로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1993년도에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었던 **李**씨는 지금도 축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용, 땅심을 높임과 동시에 벼농사 규모 확대와 대형 농기계 등을 구입 쌀농사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농민보다 많은 수량을 생산한 비결에 대해 **李**씨는 “다른 농민들보다 10일정도 일찍 모내기를 실시하고 떨어진 지력(地力)보강을

위해 300평당 2톤정도의 퇴비를 넣은 뒤 농촌지도소의 지도에 따라 병해충에 대한 적기방제를 했다”고 말했다.

李씨는 또한 “이번상은 더 많은 쌀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정부의 채찍으로 알고 전국 다수왕이 되기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힘찬 포부를 밝혔다. **농약정보**

